

典經에 나타난 冤의 樣相과 解冤

高南植*

目次

I. 緒言	III. 解冤公事
II. 冤의 樣相	1. 解冤公事
1. 冤	2. 無冤無憾의 世界
2. 先天現實과 冤의 發生樣相	IV. 結語

I. 緒言

인류 역사는 冤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무수한 원과 그로인한 참극과 재화가 일어났던 것이 先天 우주의 현실이었다.

解冤은 원을 푸는 것이다. 相克으로 인한 원이 우주간에 가득차 盡滅之境에 처했음으로 九天上帝께서는 降世하시어 天地公事를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간 役事하셨다. 이를통해 解冤이 이루어지고 開關에 의한 相生의 道가 세워져 後天仙境이 구현된다.

해원은 陰陽合德과 神人調化의 원리하에서 度數의 調整, 神明의 造化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해원을 위한 공사는 神道の 체계아래 선천 상극도수가 후천 상생도수로 전환돼 이루어진다.

원의 고찰에 있어서는 그 의미의 명료성과 유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의 혼재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난점하에서 本考는 원에대한 고찰을 전경 구절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에 나타나는 원의 樣相과 해원공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있어 원, 한, 원한, 척등에 대한 의미규정을 지양하고 원, 한, 원한, 척등을 유사 의미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선천의 현실에서 파생된 원을 전경속에서 정리하고 정리된 원과 관련된 구절을 통해 解冤公事의 방법을 概括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冤의 樣相

본장에서는 전경 구절내에서 원, 한, 원한, 척등이 쓰여진 구절을 중심으로 용례를 먼저 찾아보고 그 발생양상을 고찰하였다.

1. 冤

典經에 나타나는 冤과 유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冤,恨,怨恨,憾등이 보인다. 이 단어들의 뜻을 사전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冤은 屈,曲,不滿등의 뜻이며¹⁾, 怨은 恚(恚는 怒와 통함)²⁾, 恨은 怨極의 의미로³⁾ 정리된다.또한 憾은 憂로 풀이 된다.⁴⁾

주지의 사실로 우리의 생활속에서 언어사용의 실상을 볼 때 원과 유사한 뜻을 갖고 있는 윗 낱말들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해 파악하기는 어렵다.

의미상으로는 恨보다는 怨이, 그리고 원보다는 원이 더 강하고,우리말 사전에서는 恨을 怨恨과 恨歎으로 설명하고 怨恨은 冤痛한 생각이며,포괄적으로 恨의 의미안에는 원한, 한탄, 원통함, 누우침, 한숨, 탄식, 소원, 불평의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⁵⁾

먼저 冤은 典經에서 丹朱와 震默의 경우에서 보인다.

1) 『大漢和辭典』 卷2, 諸橋轍次著, 大修館書店, 1984, 128쪽

2) 앞의 책 卷4, 1011쪽

3) 앞의 책 卷4, 1033쪽

4) 앞의 책 권4, 1174쪽

5) 文淳太, 「恨이란 무엇인가」, 「恨의 이야기」, 서광선 엮음, 142 - 145쪽, 1988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공사 3장 4절)

“震獸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 자 하였으나 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冤을 품고(권지 2장 37절)

단주의 원은 堯의 아들로서 왕위를 전수받지 못한 것이며 진복은 인세에 천 상묘법을 전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한편 참화속 무명 약소민족인 것이 조선의 국가적 원이 된다.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문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권지1장 11절)

인간만이 아닌 禽獸들에게도 원이 있음이 나타난다. 구천상제께서 1901년 49일간의 대원사에서 공부하고 나오자 금수들이 몰려와서 해원을 갈 구한다.

대원사 골짜기에 각색의 새와 각종의 짐승이 갑자기 모여들어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 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너희 우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려함인가” 하시니 금수들이 알아들은 듯이 머리를 숙이는도다(행록2장 15절)

怨恨에 대한 것은 다음의 내용에 드러난다.

상제께서 천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공사1장 3절)

세계에 비할 수 없는 物衆地大와 禮樂文物의 大中華의 山河와 백성이 夷狄의 칭호를 받는 淸에게 정복되었으니 대중화에 어찌 원한이 없겠나 이까.(공사3장 18절)

상극이 낳은 것이 원한이고 중국의 원한은 오랑캐족인 청에게 정복당한 것이다.

한편 神의 위치에서의 원한과 인간계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죽은 후에도 원한으로 갖게됨을 볼 수 있다.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나.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공사1장 29절)

본래 동학은 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공사1장 19절)

또한 포부를 이루지 못한데서 원한이 생김을 逆臣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⁶⁾

어린 아이에게서도 원한이 나타난다. 나이 어린 아이였지만 『내가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 이웃 아이와 먹으로 장난을 하다가 그 아이가 나에게 지고 울며 돌아가서는 다시 그 서당에 오지 않고 다른 서당에 가서 글을 읽다가 얼마 후 병들어 죽었도다. 그 신이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나에게 해원을 구함으로』(행록 4장 54절)에서 처럼 개인적인 모멸감과 슬픈 일을 당했던 것이 원한이 되기도 한다.

恨을 품은 사례도 등장한다.

이 곳에서 전 명숙이 잡혔도다. 그는 司命旗가 없어서 抱恨하였나니(공사3장 2절)

위에서 관군에게 避老里에서 체포된 전명숙(전봉준)의 恨이 司命旗가 없었던 것임을 볼수있다.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원망이 되어 공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에 전념하시는 중임으로 응하지 아니 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원망하였도다.(공사3장 29절)

6) 만고 역신을 해원하여 모두 星宿로 붙여 보내리라. 만물이 다 시비가 있되 오직 성수는 시비가 없음이라. 원래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이므로 원한이 천지에 가득하였거늘(교법 3장 6절)

怨은 天地人이 각각 나타낼 수 있는 작용의 薄함에서 있게됨을 알 수 있다.

하늘이 우로를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방의 원이 있고 땅이 수토를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물의 원이 있으며 인간이 덕화를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사에 원이 생긴다(天用雨露之薄 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薄 必有萬物之怨 人用德化之薄 必有萬事之怨) (행록 3장 44절)

憾이 일어나는 예를 전경 구절을 통해 보면 아래와 같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교법 2장 44절)

위의 내용은 척이 상대방에 대한 억울한 원한과 미움을 만드는데서 일어남을 보여준다.

또한 척은 『이웃 사람이 주는 맛 없는 음식을 먹고 혹 병이 생겼을지라도 사색을 내지 말라. 오는 정이 끊겨 또한 척이 되나니라.』(교법2-46)의 내용처럼 남의 호의에 대해 피해를 입고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데서도 일어난다. 또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곤경에 빠트릴 때 척이 발생된다.⁷⁾

또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교법3-4)에서 볼 수 있듯이 부귀한 자와 지혜, 강권을 가진 사람이 척에 걸림을 볼 수 있다. 특히 부자들은 재산만큼 살기가 있어 척에 걸린다.⁸⁾

국가간의 척도 존재한다. 일례로 朝鮮과 日本간의 척은 神界 道術神明간의 척이었다.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공사 2장 4절)

그리고 두나라 사이의 척은 일본의 세가지 恨에서 일어난 것이다.⁹⁾

7) 대장이 삼군을 통솔하여 적진에 쳐들어감이 장쾌하고 영귀하다 할지라도 인명을 사지에 물고 많은 살해를 입혔으므로 악척이 되어 앞을 막느니라.(예시 58절)

8) 행록 4장 48절 참조

9) 또 지난 임진 왜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치 못하고 도리어 세가

2. 先天現實과 冤의 發生樣相

常道가 무너지고 재화와 참극이 일어났던 선천의 문제는 상극으로 생긴 원한에서 야기됐다. 이것은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공사1-3)에서 볼 수 있으며 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진멸에 처한 선천의 현실은 극복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계 冥府의 錯亂이 온 세상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 나타나며 명부에대한 九天上帝의 공사가 처결된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 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뒤부터 상제께서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시고는 그것을 불사르셨도다.(공사 1-5)

상제께서 김 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朝鮮冥府를 全 明淑으로, 淸國冥府를 金 一夫로, 日本冥府를 崔 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곧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고 말씀을 잇고 글을 불사르셨도다.(공사 1장 7절)

또한 地氣가 통일되지않은 것이 인계 인류 반목쟁투의 원인이며 그 해결이 해원에 있음을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공사 3장 5절)에서 볼 수 있다.

상극의 弊害는 묵은 하늘로 표현되는 선천 운행원리의 殺性和 그로인한 피해를 설명한 부분에서 역시 찾을 수 있다.

상제께서 어느날 종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꺾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되느니라” 하시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보셨도다. 상제께서 공사를 끝내시고 가라사대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 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 하셨도다.(공사 1장 11절)

상제께서 와룡리 신 경수의 집에서 공우에게 “너의 살과 나의 살을 떼어서 쓸데가 있으니 너의 뜻이 어떠하뇨”고 물으시기에 그가 대하여 말하기를 “쓸 곳이 있으시면 쓰시옵소서” 하였도다. 그후에 살을 떼어 쓰신 일은 없으되 다음날부터 공우가 심히 수척하여 지는도다. 공우가 묻기에 “살을 떼어 쓰신다는 말씀만 계시고 행하시지 않으셨으나 그후로부터 상제와 제가 수척하여 지오니 무슨 까닭이 오니까.” 상제께서 “살은 이미 떼어 썼느니라. 묵은 하늘이 두 사람의 살을 쓰려하기에 만일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배운이 되므로 허락한 것이로다”고 일러주셨도다. (공사 3장 13절)

사람을 죽이는 공사를 보았다는 묵은 하늘에 대한 표현이 선천 상극 참혹상의 일면을 드러낸다. 또한 천지공사로 후천선경을 열고자하는 九天上帝의 살과 종도(박공우)의 살을 원하는 묵은 하늘의 의도에서 묵은 하늘의 살기와 잔인성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묵은 하늘이 만든 의식 제도 관습이 천하를 재검과 비검에 빠지게 했던 것이다.

세속에 전하여 내려온 모든 의식과 허례를 그르게 여겨 말씀하시길 이는 묵은 하늘이 그르게 꾸민 것이니 장차 진법이 나리라 하셨도다.(교법 1장 18절)

상극에 의해 생기는 是非와 爭鬪의 실례는 선천에서 雄霸의 術과 英雄時代로 나타났다.

시속에 어린 학동에게 통감을 가르치는 풍습이 생겼나니 이것은 어릴

때부터 시비로써 성품을 기르려는 것이니 웅패의 술이로다. 어찌 합당하다 하리오.(교법 2장 25절)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다.(교법2-55)

또한 그속에서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교법 3장 34절)와 같이 下克上이 일어났다. 이러한 선천의 현실속에서 원과 한이 삼계에 쌓이게 된 것이다.

한편 문순태는 恨이 생겨난 원인을 1.불안과 위축의 역사 2.유교중심의 사상이 빚은 계층의식 3.남존여비사상에서의 남자들의 여자에 대한 횡포와 인종의 미덕을 강요한 데서 생기는 女恨 4.가학적 사대부와 피학적 민중의 입장에서 사대부는 민중의 원한의 대상인 것으로 보았으며 이밖에도 망국한, 계모와 의붓자식, 의붓형제지간, 이웃과의 이해관계 싸움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면 어떠한 원과 한들이 삼계에 일어났는지를 알아보자.¹⁰⁾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冤 발생의 최초의 원인을 역사기록속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단주의 원으로 서술된다.

冤의 發生을 인류역사 기록의 시작과 함께 했을 때 원의 시작은 요의 아들이었던 단주의 원으로 典經은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단주의 원은 원의 종자로 세상에 뿌려져 선천에서 인류를 파멸에 빠트렸다. 그것은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冤의 역사의 첫 장인 堯의 아들 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

10) 文淳太 앞의 책, 152-156쪽

다 하여 요가 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蒼梧에서 崩케 하고 두 왕비를 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 하고 하셔도다.』(공사 3장 4절) 에서 볼 수 있다.

위 典經내용(공사 3-4)에서 단주의 원만이 아니라 단주와 순, 단주와 요의 두딸의 관계에서도 원이 발생되었음을 또한 생각할 수 있다.

帝堯가 丹朱가 아닌 舜에게 讓位한 사실은 사료상에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온다.

堯曰 誰可順此事 放齊曰 嗣子丹朱開明 堯曰 吁 頑凶不用 衆皆言於堯曰 有矜在民間 曰虞舜 堯曰 然朕聞之 其何如 堯曰 吾其試哉 於是堯妻之二女 觀其德於二女 舜受終於文祖 文祖者 堯大祖也 於是帝堯老 命舜攝行天子之政 以觀天命 堯辟位凡二十八年而崩 百姓悲哀 堯之子丹朱之不肖 不足授天下 於是乃權授舜 授舜 則天下得其利而丹朱病 授丹朱 則天下病而得丹朱得其利 堯曰 終不以天下之病而利一人 而卒授舜而天下 堯崩 舜讓辟丹朱於南河之南 諸侯朝覲者 不之丹朱而之舜 獄訟者不之丹朱而之舜 謳歌者 不謳歌丹朱而謳歌舜 舜曰天也 夫而後之中國踐天子位焉 是爲帝舜 踐帝位三十九年 南巡狩 崩於蒼梧之野 葬於江南九疑是爲零陵¹¹⁾

삼계내에 어떠한 원들이 존재하는지를 典經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신분제도하에서 나타난 원이 있다. 이것은 또한 신계측면에서 보면 선령신의 원이 된다.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다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적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교법 1장 9절)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형렬은 자기 머슴 지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

11) 司馬遷, 『史記』, 宏業書局, 11쪽-17쪽, 中華民國 72年

망스려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
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
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일러주셨도다. (교법 1장 10절)

兩班과 賤人, 嫡子와 庶子라는 신분제도하의 名分과 區別로 인해 천인, 서자계
층에 원과 척이 맺히게 되었다.

九天上帝께서 大學校 公事를 보시고¹²⁾ 배우지 못한 천민계층인 巫堂에게
처음으로 教를 전해 해원을 해준 점에서 천민들의 배우지 못한 원이 존재함
을 알수 있다.¹³⁾

男尊女卑의 사회적 관습속에서 싸여온 여자의 원도 있다.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교법 1-32)

후천에는 그 닭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
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교법 1- 68)

관직의 高下에서 야기된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도 존
재한다.

상제께서 종도와 함께 계실 때 김 광찬에게 “네가 나를 어떠한 사람으
로 아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촌 양반으로 아나이다”고 대답하니라. 다
시 상제께서 물으시기를 “촌 양반은 너를 어떠한 사람이라 할 것이냐.”

12)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神人の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하의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봉록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판 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셨도다.(교운1장 27절)

13) 상제께서 김 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정하시고 “학교는 이 학교가 크니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리라” 하시고 경학을 시켜
무당 여섯명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의 각자 앞에 청수를 떠 놓고 그것을 향하여
사배를 하게 하고 시천주 세번을 제각기 따라 읽게 하셨도다.이것을 끝내고 그들
의 이름을 물은 다음에 각자로 하여금 청수를 마시게 하니 이것이 곧 봉록이로
다. 이것이 해원시대에 접어들어 맨 먼저 천한 사람들에게 교를 전하신 것이었도
다.(교운 1장 32절)

광찬이 여쭙니라. “읍내 아전이라 할 것이외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촌 양반은 읍내의 아전을 아전놈이라 하고 아전은 촌 양반을 촌 양반놈이라 하나니 나와 너가 서로 화해하면 천하가 다 해원 하리라” 하셔도다.(공사 1장 25절)

선천시대 도를 닦았으나 道通을 하지 못한 인간의 원도 있다.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孔子는 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三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셔도다.(교운 1장 34절)

인간계에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인간들의 원도 나타난다. 甲午東學亂에 참여했다가 죽은 동학농민군들의 원이 逆도가 됨을 볼 수 있다.

상제께서 逆도를 조정하는 공사에 착수하셔도다. 경석, 광찬, 내성은 대흥리로 가고 원일은 신 경원의 집으로 형렬과 자현은 동곡으로 떠났도다. 상제께서 남아 있는 문 공신, 황 응중, 신 경수들에게 가라사대 “경석은 誠敬 信이 지극하여 달리 써 볼까 하였더니 스스로 청하는 일이니 할 수 없도다”고 일러주시고 또 “본래 동학은 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逆도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 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십 이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칭함이니라. 그 부친이 동학의 중진으로 잡혀 죽었고 저도 또한 동학 총대를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동학 신명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王侯將相의 해원이 되리라”고 말씀을 맺으셔도다.(공사 2장 19절)

과거 역사상 인물에 대한 원으로 崔益鉉, 朴泳孝, 全明叔, 崔水雲 그리고 秦始皇의 원도 典經에 등장한다.

상제께서 최 익현과 박영효의 원을 풀어 주신다고 하시면서 (공사 2장 22절)

상제께서 司命旗를 세워 전 명숙과 최 수운의 원을 풀어주셨도다.“이 곳에서 전 명숙이 잡혔도다. 그는 司命旗가 없어서 抱恨하였나니 (공사 3장 2절)

신계 신명의 원도 삼계를 채웠다. 자손을 못뒤 자손의 음식을 흠향할 수 없어 다른 신(황천신)에게 의탁해 지내왔던 신(중천신)들의 원한서린 하소연이 하늘에 내재해 있다.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 신이 나에게 하소연 하므로(공사 1장 29절)

원과 통하는 개념으로 국가간의 척과 한도 등장한다.

상제께서 어느날 가라사대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一時天下統一之氣와 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仁이니라. 만일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잘 지키지어다”고 이르시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 샅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하셨도다.(공사 2장 4절)

또 지난 임진 왜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치 못하고 도리어 세가지의 한만 맺었으니 소위 三恨堂이니라.

첫째로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 一한이요.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해되었음이 二한이요. 세째는 모 심는 법을 가르쳤음이 三한이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저들이 먼저 서울에 무난히 들어오게 됨으로써 一한이 풀리고, 다음 인명을 많이 살해하지 아니 함으로써 二한이 풀리고, 세째로는 枯旱三年으로 白地江山이 되어 民無秋收하게 됨으로써 三한이 풀리리라.(예시 74절)

병을 치료해주지 않은 원망속의 원한이 천지기운을 막기도 한다.

상제께서 己酉년에 들어서 埋火공사를 행하고 사십 팔일 되는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에 전념하시는 중임으로 응하지 아니 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원망하였도다. 이로부터 동남풍이 멈추므로 상제께서 깨닫고 곧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위안케 하시니라. 이때 상제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고 말씀하셨도다.(공사 3장 29절)

한이 얼굴의 추함에서 나타나고 부친으로서 자식의 슬픔에서 나타난 애원이 표출된다.

崔雲益의 아들이 병으로 인해 헤매이므로 운익이 상제께 달려와서 배알하고 살려 주시기를 애걸하니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 병자가 얼굴이 못생김을 일생의 한으로 품었기에 그 영혼이 지금 淸國 潘陽에 가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니 어찌하리오.” 운익이 상제께서 병자를 보신 듯이 말씀하시므로 더욱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굳이 약을 주시기를 애원하니라. 상제께서 마지 못해 四物湯 한 첩을 지어 九月飲이라 써 주시니라. 운익이 약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니 아들은 벌써 숨을 거뒀도다. 운익이 돌아간 후에 종도들이 구월음의 뜻을 여쭙었더니 가라사대 “九月 蔣始皇於 驪山下라 하니 이것은 살지 못할 것을 표시함이다. 그 아들이 죽을 사람이지만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약을 주었노라” 하셨도다. (권지 1장 10절)

Ⅲ. 解冤公事

1. 解冤公事

해원은 선천의 문제속에서 재겁과 비겁에 싸인 우주를 구제하기위한 것으로 인류를 파멸에서 건지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위해서 필요하다.¹⁴⁾

14)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冤의 역사의 첫 장인 堯의 아들 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蒼梧에서 崩케 하고 두 왕비를 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니라”고 하셨도다.(공사 3장 4절)

해원의 필요성은 一人의 원이라 하더라도 천지의 기운을 막을 수 있다는 원의 심각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사람의 품은 원한으로 능히 천지의 기운이 막힐 수 있느니라.(교법 1-31) 15)

또 동학신명의 해원에서 볼 수 있듯이 역도에 걸려 후천에서의 政事가 어지러워질 수 있으므로 해원공사가 요구된다.

또한 신분적 구별과 명분을 없애고 전경에 좋은 시대로 표현되는 후천선경을 열기위해서 해원이 요청된다.¹⁶⁾

그런데 해원은 神道를 근본으로 度數의 整理¹⁷⁾, 神明의 造化를¹⁸⁾ 따라 진행된다.¹⁹⁾

15) 상제의 권능으로 자연의 조화를 일으키는 일도 일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방해받음을 볼 수 있다.

상제께서 己酉년에 들어서 埋火 공사를 행하고 사십 팔일 되는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에 전념하시는 중 임으로 응하지 아니 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원망하였도다. 이로부터 동남 풍이 멈추므로 상제께서 깨닫고 곧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위안케 하시니라. 이때 상제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고 말씀하셨도다.(공사3장 29절)

16)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형렬은 자기 머슴 지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

17) 拙稿 『典經에 나타난 新元의 意味』, 『대순사상논총 제1집』, 대순사상학술원, 창문사, 1996, 421쪽 - 429쪽

18) 拙稿 『典經에 나타난 神人調化』, 『대순사상논총 제3집』, 대순사상학술원, 창문사, 1997, 438쪽 - 444쪽. 이하 본문 해원공사 부분은 내용은 2,3집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19) 다음의 두 전경구절에서 [1.해원,2.도수정리,3.신명조화]의 先後 관계가 명료하지 않음이 있음을 밝혀둔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물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

해원을 이루기 위한 천지도수의 정리는 삼계공사를 통해 相克之理가 相生之理로 바뀌어짐으로써 가능케된다.

이것은 음양오행의 관계에서 水火金木이 때를 기다려 성공해 水가 火에서 생성(水生於火)됨으로써 天下無相克之理를 이룬다는 「현무경」(교운 1장 66절)의 오행상생화 도수공사와 통하며 오행상생화 공사는 음양상생을 이루는 기저가 된다.

水가 火에서 생성되고 火가 水에서 생성된다. 金이 木에서 생성되고 木이 金에서 생성된다. (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 (제생 43절)

水火金木이 때를 기다려 성공하며 水가 火에서 생성된다. 그러므로 천하에 상극의 이치가 없다. (水火金木 待時以成 水生於火 故天下無相克之理) (교운 1장 66절, 현무경)

水와 火, 金과 木은 상극이었으나 상극에서 상극이 나오도록 공사가 처결되어 결국 상생의 원리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도수조정은 「運습」을 밝힌 글에서 찾을 수 있다. 運이 잘 합쳐져 천지공사로 도수가 조정되고 정리돼 우주의 각 부분 및 원리에 있어서 道와 度 그리고 精과 氣가 돌아 太一의 聖哲에 귀합해 상생의 기틀이 세워진다.²⁰⁾ 運습과 관련된 내용은 도표 1(논문 뒷면 참조)로 요약된다.

한편 해원을 이루기위해 地氣를 統一해야하며 지기통일 공사는 다음과 같이 山河大地의 기운을 뽑아 모으는 도수조정이 이루어져 가능하다.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 정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父母山의정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 부모산은 전주 母岳山과 淳昌 回文山이니라. 회문산에 이십 사혈이 있고 그 중에 五仙圍碁形이

라. 이것이 곧 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공사1-3)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공사3-5)

위 두 구절의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와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에서 선 후에 관계없이 유기적으로 연관됨을 알 수 있다.

20) 諸道度 諸精氣 茁茁歸 合太一聖哲 茁茁歸 合太一聖哲 茁茁歸 茁茁歸 合太一聖哲 聖哲(교운 2장 42절, 『운합주』)

있고 碁變은 唐堯가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다음에 네 明堂의 정기를 종합하여야 하니라. 네 명당은 淳昌回文山의 오선위기형과 務安 僧達山의 胡僧禮佛形과 長城 巽龍의 仙女織錦形과 泰仁 拜禮田의 群臣奉詔形이니라. 그리고 부안 변사에 二十四 혈이 있으니 이것은 회문산의 혈수의 상대가 되면 해변에 있어 海王의도수에 응하느니라. 회문산은 山君, 변산은 海王이니 상제께서 그 정기를 뽑으셨도다. (공사 3장 6절)

상제께서 여름 어느날에 황 응종의 집에서 산하의 대운을 거둬들이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상제께서 밤에 이르러 백지로 고깔을 만들어 응종에게 씌우고 “자루에 든 벼를 꼬집어 내서 사방에 뿌리고 백지 백 이십장과 양지 녀장에 글을 써서 식혜 속에 넣고 인적이 없을 때를 기다려 시궁 흙에 파묻은 후에 고깔을 쓴 그대로 세수하라”고 명하시니 그는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별안간 인당에 콩알과 같은 사마귀가 생겼도다. 응종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벼를 뿌린 것을 보았으나 한 알도 보이지 않고 없어졌도다.(공사 3장 7절)²¹⁾

도수조정과 함께 해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명 조화가²²⁾ 필요하다. 신명의 조화는 신계 명부의 일이 결정되면 인계일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내용처럼 인계 일까지 조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신계해원은 인계해원을 이루고 인계해원은 신계에 영향을 준다.

이점을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의 종지를 통해 보기로 한다. 먼저 신과 인의 調化가 음양과 관련이 있음을 「陰陽經」에서 찾을 수 있다.²³⁾

우주 만상의 원리가 음양관계속에서 존재성을 갖게 되며 신과 인의 조화도 음양의 이치하에서 있게됨을 보여준다. 대순사상에서 天地人의三界는 陰陽의 원리하에 운행되고 있으며 이 음양원리는 調化작용과 밀접한 관련하에 이루어진다.

21)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다. 『상제께서 류 찬명에게 天文地理風雲造化 八門遁甲 六丁六甲 智慧勇力과 回文山五仙圃碁穴 務安僧達山胡僧禮佛穴 長城巽龍仙女織錦穴 泰仁拜禮田群臣奉詔穴을 쓰게 하고 불사르셨도다.』(행록5장 21절)

22) 신명조화에서 조화는 造化로, 신인조화에서 조화는 調化로 漢字化된다. 그리고 造化는 “전경에 나타난 神人調化”(대순사상논총 3집)에서 서술한 조화의 뜻에 포함돼 본장에서 서술되었다.

23) 천지의 일은 모두 이 음양가운데 성공이 있고 만물의 이치도 모두 이 음양가운데 이루어진다.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 신인도 음양으로써 조화를 성공한다.(天地之事 皆是陰陽中有成 萬物之理 皆是陰陽中有遂 天地以陰陽成變化 神人以陰陽成造化)(교운 2-42)

그런데 調化의 원리는 선천문제의 해결이 선행될 때 이루어진다. 선천문제는 음양관계와 관련이 있어 결국 음양 상극으로 야기된 冤²⁴⁾으로 삼계가 겁액에 빠져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의 해소와 음양의 올바른(正) 관계가 정립되어야함을 알수 있다. 즉 해원을 통해 음양관계의 양자가 정음정양화 되어 調和해야 되며 이러한 토대위에서 신과 인의 造化는 정음정양화된 음양을 調理하고 統制해 진행되는 것이다.

선천에서는 음양의 불균등, 불평등에서 소외계층들이 차별화되어 원과 척이 맞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느 일방에 원이 없이 질서체계가 정립될 때 調和가 가능하다.

천지공사속에서 해원공사를 통해 원과 척을 해소함으로써 정음정양의 균등한 음양관계가 확립되어 調和를 이룰수 있게 된다.

먼저 神界의 調和는 명부착란으로 인한 원의 해소로 시작되며 명부 神들의 조정은 人界문제 해소의 근원이다.²⁵⁾ 또한 神과 관련이 있는 天과 地의 관계에서 地는 음이 되고 음인 地는 선천시대에 양인 天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하된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 地의 위상이 회복된다.²⁶⁾ 人界의 調和를 이루는 해원공사는 불평등 불균형하에 존재해 왔던 계층들을 해원케하는 공사를 통해 처결된다.²⁷⁾ 男과 女로 볼 때 음이 되는 여인의 공덕을 세우는 공사를 봄으로써 남존여비라는 억음존양의 논리가 무너진다.²⁸⁾ 또한 사회적 신분적으로 억눌려 원과 척을 갖고 있던 천인계층에 대한 해원 공사도 이루어졌다.²⁹⁾ 이와함께 조선조 말기 관직의 고하에서 나타나는 신분계층간의 대립속에서 하급 관직에 있는 계층원들의 원도 풀린다.³⁰⁾

이처럼 음양관계로 볼 때 양적요소, 양적계층과 대응돼 원을 갖고 있는

24) 이것은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맏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공사 1장 3절)라는 부분에서 원한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25) 공사 1장 7절 참조

26) 교법 1장 62절 참조

27) 교법 1장 67절 참조

28) 공사 1장 32절, 교법 1장 68절 참조

29) 교법 1장 9절 참조

30) 공사 1장 25절 참조

음적요소, 음적계층을 해원시켜야 한다. 이를통해 정음과 정양이 성립되고 神界와 人界의 원이 해소됨으로써 相生속에 調和가 구현되 神人調化의 기틀이 이룩되며 이 과정에서 신명의 조화도 있게 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宗旨중 正陰正陽은 도수의 정리와³¹⁾ 神人調化는 신명의 조화와의 관련성 속에 해원과 연관됨이 나타난다.

이상에서 해원공사와 관련이 있는 도수정리, 신명조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해원공사의 방법을 앞장에서 다루었던 典經의 冤관련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丹朱의 해원

단주의 원은 요가 단주에게 바둑판을 주고 순에게 천하를 전한 사실로부터 근거한다. 이 원은 바둑의 시조였던 단주에 맞추어 五仙圍碁穴을 중심으로 해원을 한다.³²⁾

31) 아래 내용에서 [후천의 음양도수, 정음정양의 도수]라는 구절이 보인다.

『상제께서 어느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상제께서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응종은 두 점, 경수는 세 점, 내성은 여덟 점, 경석은 열두 점, 공신은 한점을 찍었는데 “아홉점이 없으니 자고로 일남 구녀란 말은 알 수 없도다”고 말씀하시고 내성에게 “팔 선녀란 말이 있어서 여덟 점을 쳤느냐”고 묻고 응종과 경수에게 “노인들이 두 아내를 원하나 어찌 감당하리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후천에서는 새로운 기력이 나지 아니하리까”고 되물으니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무슨 아내를 열 들씩이나 원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열두 제국에 하나씩 아내를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상제께서 다시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을 건너시고 공신을 돌아보면서 “경석은 열 들씩이나 원하는 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乾坤이 있을 따름이오 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고 하시고 공사를 잘 보았으니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분부하셨도다. 공신이 말씀대로 봉행하였느니라.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文王의 도수와 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말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주셨도다.』(공사2-16)

32) 오선위기혈을 통한 단주의 해원공사는 조선국운공사와도 관련된다.

『현하 대세가 오선위기(五仙圍碁)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혼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혼수할 수 없어 수수 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말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들은 주인에게 돌려

또 상제께서 장근으로 하여금 식혜 한 동이를 빚게 하고 이날 밤 초경에 식혜를 큰 그릇에 담아서 인경밑에 놓으신 후에 “바둑의 시조 丹朱의 해원도수를 回文山 五仙圍碁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리려 함이라. (공사2-3)

부모산은 전주 母岳山과 淳昌 回文山이니라. 회문산에 이십 사혈이 있고 그 중에 五仙圍碁形이 있고 碁變은 唐堯가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공사3-6)

2) 동학 신명의 해원

동학의 신명은 왕후장상이 되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다.이 소원은 해원두목을 정해 해소된다.해원두목으로 차경석을 정하는데 이것은 차경석이 12제국을 바라고 그의 부친이 동학에 중진으로 관계되고 차경석 자신도 동학의 총대였던 일이 있어서이다.

이러한 해원공사의 결과로 훗날 금전소비와 사람도 동학난이 일어났던 1894년보다 많이 된다.

상제께서 十二월에 들어서 여러 공사를 마치시고 逆度를 조정하는 공사에 착수하셨도다. 경석, 광찬, 내성은 대흥리로 가고 원일은 신 경원의 집으로 형렬과 자현은 동곡으로 떠났도다. 상제께서 남아 있는 문 공신, 황 응중, 신 경수들에게 가라사대 “경석은 誠 敬 信이 지극하여 달리 써 볼까 하였더니 스스로 청하는 일이니 할 수 없도다”고 일러주시고 또 “본래 동학은 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逆度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 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십 이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청함이니라. 그 부친이 동학의 중진으로 잡혀 죽었고 저도 또한 동학 총대를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동학 신명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王侯將相의 해원이 되리라” 하시고 종이에 글을 쓰시며 외인의 출입을 금하고 “훗날에 보라.금전소비가 많아질 것이며 사람도 갑오년보다 많아지리라. 풀어두어야 후천에 야무 꺼라김이 없느니라”고 말씀은 맺으셨도다.(공사 2장 19절)

지리니 옛날 한 고조는 말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니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예시 28절)

3) 중국의 해원

중국의 원은 오랑캐인 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쪽에 의한 국토회복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종도가 7일의 도수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생각을 한후 상제와의 대화속에서 해원공사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상제께서 원일과 덕검에게 “너희 두 사람이 덕검의 작은 방에서 이례를 한 도수로 삼고 문밖에 나오지 말고 중국일을 가장 공평하게 재판하라. 너희의 처결로써 중국 일을 결정하리라” 이르시니 두 사람이 명하신 곳에서 성심 성의를 다하여 생각하였도다. 이렛날에 원일이 불리워서 상제께 “청국은 정치를 그릇되게 하므로 열국의 침략을 면치 못하며 백성이 의지할 곳을 잃었나이다. 古書에 天與不取反受其殃이라 하였으니 상제의 무소불능하신 권능으로 중국의 제위에 오르셔서 백성을 건지소서. 지금이 기회인 줄 아나이다”고 여쭙어도 상제께서 대답이 없었도다. 덕검은 이렛동안 아무런 요령조차 얻지 못하였도다. 상제께서 “너는 어떠하뇨” 하고 물으시는 말씀에 별안간 생각이 떠올라 여쭙는지라. “세계에 비할 수 없는 物衆地大와 禮樂文物의 大中華의 山河와 백성이 夷狄의 칭호를 받는 淸에게 정복되었으니 대중화에 어찌 원한이 없겠나이가. 이제 그 국토를 회복하게 하심이 옳으리라 생각하나이다.” 상제께서 무릎을 치시며 칭찬하시기를 “네가 재판을 올바르게 하였도다. 이 처결로써 중국이 회복하리라” 하시니라. 원일은 중국의 해원공사에만 치중하시는가 하여 불평을 품기에 상제께서 가라사대 “曆亡則齒寒이라 하듯이 중국이 편안하므로써 우리는 부흥하리라. 중국은 예로부터 우리의 조공을 받아 왔으므로 이제 보은신은 우리에게 쫓아와서 영원한 복록을 주리니 小中華가 곧 大中華가 되리라” 일러주셨도다.(공사 3장 18절)

4) 김경흔의 해원

김경흔은 50년공부로 태을주를 얻은 인물로 신명으로부터 받은 주문으로 사람을 많이 살리는 것이 원이다.

상제께서 태을주를 종도에게 외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해원이 되어나 간다.

종도들이 모인 곳에서 상제께서 三월 어느날 가라사대 “지금은 신명 해원시대니라. 동일한 五十年 공부에 어떤 사람을 해원하리오. 최 제우는 庚申에 득도하여 侍天呪를 얻었는 바 己酉까지 오십년이 되니라. 忠南

庇仁 사람 金京혼은 五十년 공부로 太乙呪를 얻었으되 그 주문을 신명으로부터 얻을 때에 그 주문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 두 사람 중의 누구를 해원하리오”라고 물으시니 시좌하고 있던 중도들 중에서 광찬이 “상제님의 처분을 기다리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천주는 이미 행세되었고 태을주를 쓰리라” 하시고 읽어 가르치시니 그 주문은 이러하였도다.(교운 1장 20절)

5) 道通하지못한 道人の 海원

도통을 못한 것이 원이 되는 신은 닦은 바대로 상, 중, 하의 도통을 하게 해준다. 여기에는 대두목과 유불선 도통신들이 관계하고 천상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천상 선령신들이 인계 자손과 연관돼 있다.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孔子는 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재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교운 1장 34절)

6) 진목의 海원

진목의 소원은 천상의 묘법을 인세에 내려 가르쳐주는 것이었다.그러나 그는 김봉곡에게 참혹히 죽은 후 동양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건너가 문화계발에 주력했다.³³⁾

33) 상제께서 全州鳳棲山 밑에 계실 때 중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니라. 金鳳谷 이시기심이 강한지라. 震默은 하루 봉곡으로부터 性理大典을 빌려 가면서도 봉곡이 반드시 후회하여 곧 사람을 시켜 찾아가리라 생각하고 걸으면서 한 권씩 읽고서는 길가에 버리니 寺院洞 입구에서 모두 버리게 되니라. 봉곡은 과연 그 책을 빌려주고 진목이 불법을 통달한 자이고 만일 儒道까지 통달하면 상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불법을 크게 행할 것을 시기하여 그 책을 도로 찾아오라고 급히 사람을 보냈도다. 그 하인이 길가에 이따금 버려진 책 한권씩을 주워 가다가 사원동 입구에서 마지막 권을 주워 돌아가니라. 그후에 진목이 봉곡을 찾아가니 봉곡이 빌린 책을 도로 달라고 하는지라. 그 말을 듣고 진목이 그 글이 쓸모가 없어 길가에 다 버렸다고 대꾸하니 봉곡이 노발 대발하는도다. 진목은 내가 외울터이니 기록하라고 말하고 잇달아 한편을 모두 읽는도다. 그것이 한자도 틀리지 않으니 봉곡은 더욱 더 시기하였도다.(공사 3장 14절)

구천상제께서 진묵을 동양으로 초혼해와서 선경건설에 역사케 함으로써 해원이 된다.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冤을 품고 동양의 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故國으로 데려와서 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권지 2장 37절)

7) 최익현의 해원

구천상제께서 최익현의 생을 기리는 글을 써 소지하는 방법으로 해원된다.

상제께서 최 익현의 원을 풀어 주신다고 하시면서 “千世千世千千世 萬世萬世萬萬世 日月崔益鉉 이라 쓰고 불사르셨도다(공사 2장 22절)

8) 박영효의 해원

구천상제께서 박영효의 업적을 기리는 글을 써 소지하는 방법으로 해원된다.

상제께서 朴泳孝의 원을 풀어 주신다고 하시면서 “千胞千胞千千胞 萬胞萬胞萬萬胞 蒼生朴泳孝”라 쓰고 불사르셨도다.(공사2-22)

그후에 진묵이 상좌에게 “내가 八일을 한정하고 尸解로서 印度國에 가서 범서와 불법을 더 익혀 올 것이니 방문을 여닫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고 곧 入寂하니라. 봉곡이 이 사실을 알고 절에 달려가서 진묵을 찾으니 상좌가 출타 중임을 알리니라. 봉곡이 그럼 방에 찾을 것이 있으니 말하면서 방문을 열려는 것을 상좌가 말렸으나 억지로 방문을 열었도다. 봉곡은 진묵의 상좌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체를 방에 그대로 두어 썩게 하느냐. 중은 죽으면 화장하나니라”고 말하면서 마당에 나뭇더미를 쌓아 놓고 화장하니라. 상좌가 울면서 말렸으되 봉곡은 도리어 꾸짖으며 살 한점도 남기지 않고 태우느니라. 진묵이 이것을 알고 돌아와 공중에서 외쳐 말하기를 “너와 나는 아무런 원수진 것이 없음에도 어찌하여 그러느냐” 상좌가 자기 스님의 소리를 듣고 울기에 봉곡이 “저것은 妖鬼의 소리라. 듣지 말고 손가락뼈 한마디도 남김없이 잘 태워야 하느니라.”고 말하니 진묵이 소리쳐 말하기를 “네가 끝까지 그런다면 너의 차손은 대대로 호미를 면치 못하리라” 하고 동양의 모든 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옮겨갔도다.(공사 3장 15절)

9) 진시황의 해원

양지 24장으로 책을 만들어 마패이고 대보책이라 하고 표지에 [醫藥卜筮種樹之文]이라는 글을 써 해원을 한다. 여기에서 의약, 복서, 종수는 焚書坑儒에 관계없이 진시황이 남아있던 책으로 그 책을 공사로서 다시 만들어줌으로써 불로장생을 특히 소원하던 진시황이 해원됨을 볼 수 있다.

경석이 상제의 명을 받들어 양지 이십장으로 책 두 권을 매니 상제께서 책장마다 먹물로 손 도장을 찍고 모인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것이 大寶冊이며 馬牌이니라.” 또 상제께서 한 권의 책명을 “醫藥卜筮種樹之文”이라 쓰시고 “秦始皇의 해원도수이니라” 하시고 한 권을 신 원일의 집 뒷산에 묻고 또 한 권을 황 응종의 집 뒤에 묻으셨도다.(공사3-17)

醫藥卜筮種樹之文이 남게된 사실은 사료에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다.

三十三年 始皇置酒咸陽宮 博士七十人 前爲壽 丞相李斯曰 五帝不相不 三代不相襲 各以治 非其相反 時變異也 (中略) 古者天下散難 莫之能一 是以諸侯竝作 語皆道古以害今 飾虛言以亂實 人善其所私學 以非上之所建立 今皇帝竝有天下 別黑白而定一尊 臣請士官非秦記皆燒之 非博士官所職 天下敢有藏詩書百家語者 悉詣守尉雜燒之 有敢偶語詩書者 棄市 以古非今者 族 吏見知不舉者與同罪 令下三十日不燒 黥爲城旦 所不去者 醫藥卜筮種樹之書 若欲有學法令 以吏爲師 制曰 可³⁴⁾

10) 종도 최운익의 해원

최운익의 소망은 사경에 있는 아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었다. 아들이 살아날 수 없지만 상제께서 약을 지어 줌으로써 최운익을 달래고 그의 원이 해소됨을 볼 수 있다.

崔雲益의 아들이 병으로 인해 헤매이므로 운익이 상제께 달려와서 배알하고 살려 주시기를 애걸하니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 병자가 얼굴이 못생김을 일생의 한으로 품었기에 그 영혼이 지금 淸國 潘陽에 가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니 어찌하리오.” 운익이 상제께서 병자를 보신 듯이 말씀하시므로 더욱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굳이 약을 주시기를 애원하니라. 상제께서 마지 못해 四物湯 한 첩을 지어 九月飲이라 써 주시니라.

34) 司馬遷, 『史記』, 宏業書局, 73쪽, 中華民國 72年

운익이 약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니 아들은 벌써 숨을 거뒀도다. 운익이 돌아간 후에 종도들이 구월음의 뜻을 여쭙었더니 가라사대 “九月 蔣始皇於 驪山下라 하니 이것은 살지 못할 것을 표시함이로다. 그 아들이 죽을 사람이지만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약을 주었노라” 하셨도다. (권지 1장 10절)

11) 일본의 해원

과거 일본은 한국과 임진란시 三恨을 통한 도술신명사이에 척이 있다. 이 척은 구한말 조선을 둘러싼 제국주의의 국제 정세속에서 一時天下統一 之氣와 日月大御命 도수를 일본에 주어 조선을 지배하게해 三恨이 풀리는 구조로 공사가 체결된다.

상제께서 어느날 가라사대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감당을 못할 것이다.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一時天下統一 之氣와 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仁이니라. 만일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잘 지킬지어다”고 이르시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 값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하셨도다.(공사 2장 4절)

또 지난 임진 왜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치 못하고 도리어 세가지의 한만 맺었으니 소위 三恨堂이니라.

첫째로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 一한이요.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해되었음이 二한이요. 세째는 모 심는 법을 가르쳤음이 三한이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저들이 먼저 서울에 무난히 들어오게 됨으로써 一한이 풀리고, 다음 인명을 많이 살해하지 아니 함으로써 二한이 풀리고, 세째로는 枯旱三年으로 白地江山이 되어 民無秋收하게 됨으로써 三한이 풀리리라.(예시 74절)

12) 逆臣의 해원

상극과 시비의 상징으로 역적놈이라는 칭호를 듣는 역신을 상극 시비가 없는 반대적 성격인 星宿로 보내 존재케 함으로써 역신의 해원공사가 이루어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만고 역신을 해원하여 모두 星宿로 붙여 보내리라. 만물이 다 시비가 있되 오직 성수는 시비가 없음이라. 원래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이므로 원한이 천지에 가득하였거늘 세상 사람은 도리어 그 일을 밍게 보아 흉악의 머리를 삼아 육설로 역적놈이라 명칭을 붙였나니 모든 역신은 이것을 크게 싫어하므로 만물 중에 시비가 없는 성수로 보낼 수 밖에 없나니라. 하늘도 老天과 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는 시비와 상극이 없나니라” 하셨도다.(교법 3장 6절)

13) 땅의 해원

땅에 기운이 돌아 해원이 되고 앞으로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든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법적으로 산하와 강산의 기운을 뽑아 지기를 돌려 통일시키는 공사의 구조속에서 지운 상승을 통해 이루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³⁵⁾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地德이 큰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이 일체로 받들어야 하느니라.(교법 1장 62절)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 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교법 1장 67절)

14) 선령신의 해원

신계 선령신의 해원은 자손을 无極大運의 道에 들어가게시켜 후천선경으로 갈 수 있도록 心身을 닦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제 각 선령신들이 해원 시대를 맞이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빼내어 덜미를 쳐 내세우나니 힘써 닦을지어다.(교법 2장 14절)

35) 토지해원의 방법으로 도주 조정산께서 간척지를 개척한 내용도 있다.

『도주께서는 토지를 해원하고 濟民하고자 안면도와 元山島 두섬에 干瀉地를 개척하기 시작하셨도다.』(교운 2장 35절)

15) 女人의 해원

기존 남존여비의 관습을 타파하고 남자 여자의 분별을 없앤다. 구천상제께서 노파에게 길을 비켜주는 직접적인 예우와 女丈夫, 大丈夫 등의 글을 소지 시키는 방법이 쓰였다.³⁶⁾

후천에는 그 님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교법 1장 68절)

16) 한 아이의³⁷⁾ 해원

원한을 품고 있는 아이의 원을 물어 요구대로 들어주는 방법으로 해원이 이루어진다.

상제께서 하루는 경석에게 검은 색 두루마기 한 벌을 가져오라 하시고 내의를 다 벗고 두루마기만 입으신 후에 긴 수건으로 허리를 매고 여러 사람에게 “일본 사람과 같으냐”고 물으시니 모두 대하여 말하기를 “일본 사람과 꼭 같사옵나이다” 하노라. 상제께서 그 의복을 다시 벗고 “내가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 이웃 아이와 먹으로 장난을 하다가 그아이가 나에게 지고 울며 돌아가서는 다시 그 서당에 오지 않고 다른 서당에 가서 글을 읽다가 얼마 후 병들어 죽었도다. 그 신이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나에게 해원을 구함으로 그럼 어찌 하여야 하겠느냐 물은 즉 그 신명이 나에게 왜복을 입으라 하므로 내가 그 신명을 위로 하고자 입은 것이니라”고 이르셨도다.(행록 4장 54절)

17) 신농씨와 강태공

공덕에 대한 해원으로 공덕을 천하사람들에게 전해준 인물에 대한 은혜를

36) 상제께서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大丈夫 大丈夫”라 써서 불사르셨도다.(교법 2-57) 백남신의 친족인 白龍安이 관부로부터 술도매의 경영권을 얻으므로써 전주 부중에 있는 수백개의 작은 주막이 폐지하게 되니라. 이 때 상제께서 용두치 김주보의 주막에서 그의 처가 가슴을 치면서 “다른 벌이는 없고 겨우 술장사하여 여러 식구가 살아왔는데 이제 이것마저 폐지되니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통곡하는 울분의 소리를 듣고 가엾게 여겨 종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 남장군만 있으라. 여장군도 있도다.” 하시고 종이에 女將軍이라 써서 불사르시니 그 아내가 갑자기 기운을 얻고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지르는도다. 순식간에 주모들이 모여 백용안의 집을 급습하니 형세가 험악하게 되니라. 이에 당황한 나머지 그는 주모들 앞에서 사과하고 도매 주점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니 주모들이 흩어졌도다. 용안은 곧 주점을 그만 두었도다.(권지 1장 17절)

37) 구천상제님의 유년시절 같은 서당을 다니다 죽은 아이

보답하는 보은의 방법이 쓰여지기도 한다.

또 말씀하시기를 “神農氏가 농사와 의약을 천하에 펼쳤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 공덕을 모르고 매약에 神農遺業이라고만 써 붙이고 姜太公이 부국강병의 술법을 천하에 내어놓아 그 덕으로 대업을 이룬 자가 있되 그 공덕을 양모하나 보답하지 않고 다만 디달방아에 庚申年庚申月庚申日姜太公造作이라 써 붙일 뿐이니 어찌 도리에 합당하리요. 이제 해원의 때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리라” 고 하셨습니다.(예시 22절)³⁸⁾

18) 무명 약소민족이었던 조선의 해원

구천상제께서 조선에 강세하시어 천지대도를 참동학으로 전하시고 조선을 상등국으로 만들며³⁹⁾ 득천하하는 공사가 이루어져 무명의 약소민족이었던 조선을 萬國活計南朝鮮이 되게한다.

“나는 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혁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弓乙歌에 朝鮮 江山 名山이라. 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간에 大先生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代先生이로다”(권지 1장 11절)

상제께서 종도들을 데리고 계실 때 “현하 대세가 五仙圍碁와 같으니 두

38) 이외에 도주의 공부를 통해 신명이 해원되기도 한다. 『병신년 三월에 박한경은 도주의 분부를 좇아 류철규, 박종순과 함께 정하신 바에 따라 공주 東鶴寺에 이르렀도다. 이 절의 경내에 東鷄祠 三隱閣과 단종왕의 肅慕殿이 있고 생육신과 사육신을 추배한 동관리자는 사육신의 한사람인 朴彭年의 후손이고 정기적으로 청주에서 내왕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도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문이 닫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는데 이날따라 그 후손이 도주께서 불러나온 듯이 미리 와서 문을 여니 도주께서는 배종자들을 데리시고 이곳을 두루 살피셨도다. 그리고 동학사 笁화室에서 이렛동안의 공부를 마치시고 말씀하시길 “이번 공부는 神明解冤을 위주한 것이라”고 이르셨도다.』(교운 2장 57절)

39) 상제께서 매양 뱃소리를 내시기에 종도들이 그 연유를 여쭙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 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니 이제 배에 실어오는 화물표에 따라 넘어오게 됨으로 그러하노라.”고 하셨습니다.(예시 29절)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혼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혼수할 수 없어 수수 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말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고조는 말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28절)

2. 無冤無憾의 世界

해원시대 원을 만들지 않는 바른 생활태도가 전경에 나타난다. 해원에 앞서 원과 척을 짓지 않는 것이 해원시대에 강조되며 물샷틈 없는 도수에 따라 새로이 열리는 세상에서 마음, 입, 뜻에 의한 죄와 척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 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여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뿔히듯 하리니 묵은 기운이 채워 있는 곳에 큰 운수를 감당키 어려운 까닭이니라. 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곡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 차있나니라. (교법 3장 4절)

척과 원은 밀접한 관계이므로 척을 짓지 않는 일이 결국 원을 맺지 않는 것이다. 척이 없는 무척과 무원의 생활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은 억울한 원함과 미움을 만들지 않아야됨을 보여준다.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함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교법 2장 44절)

남의 호의에 대해 피해를 입고 부정적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한다. 그것은 『이웃 사람이 주는 맛 없는 음식을 먹고 혹 병이 생겼을지라도 사색을 내지 말라. 오는 정이 끊겨 또한 척이 되나니라.』(교법 2장 46절)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대장이 삼군을 통솔하여 적진에 쳐들어감이 장쾌하고 영귀하다 할 지라도 인명을 사지에 몰고 많은 살해를 입혔으므로 악척이 되어 앞을 막는 나라.』(예시 58절)에서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곤경에 빠트리는데서 惡感이 일어남도 찾을 수 있다.

한편 척과 겁액에 대해 구천상제께서 『상제께서 처음으로 자기를 따른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이 그동안 지내오던 허물을 낱낱이 회상하여 마음속으로 사하여 주시기를 빌게 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허물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시고 또 반드시 그의 몸을 위하여 척신과 모든 겁액을 풀어 주셨도다.』(교운 1장 2절)의 내용처럼 해결해주시는 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상제께서 살인을 해 척신이 몸에 따라 다니고 있음을 밝힌 부분에서 볼 수 있다.⁴⁰⁾

또한 부귀한 자와 지혜, 강권을 가진 사람이 척에 걸림과 부자들은 재산만큼 살기가 있어 척에 걸림을 알 수 있다.⁴¹⁾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여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

40) 상제께서 갑자기 그를 꾸중하시는데도다. 영학은 두렵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문밖으로 나가니라. 상제께서 영학을 불러들여 “너를 꾸짖는 것은 네 몸에 있는 두 척신을 몰리쳐 내려하는 것이니 과히 불만을 사지 말라”고 타이르셨도다. 영학이 “무슨 척이니까. 깨닫지 못하겠나이다.”고 되물은 즉 “너는 열 여덟살 때 살인하고 금년에 또 살인하였나니 잘 생각하여 보라.”고 회상을 촉구하시니 그는 옛일을 더듬었도다. “그 나이 때에 제가 南原에서 전주 아전과 말다툼하다가 그의 무례한 말에 분격하여 그에게 화로를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혔는데 이것으로써 신음하다가 그 이듬해 삼월에 죽었도다. 또 금년 봄에 長城 多洞에서 사는 외숙인 金 堯善이 의병으로부터 약탈을 당하여 의병대장 金 永白을 長城 白羊寺로 찾아가서 그 비행을 꾸짖으니 그 대장은 외숙에게 사과하고 그 의병을 찾아 총살하였도다.” 영학이 이 두 일을 아뢰었도다.(행록 4장 47절)

41) 종도들이 때때로 부자를 종도로 천거하면 상제께서 이것을 제일 괴로와하시니라. 종도들이 천거한 부자가 상제를 찾아오면 상제께서 먼저 그 사람이 오는 길가의 주막에 가서서 그를 만나 횡설 수설하셔서 그가 스스로 물러가게 하셨도다. 종도들이 이 일을 항상 궁급하게 여기고 있던 참에 그 연고를 여쭙니 가라사대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만큼 그자에게 살기가 붙어있느니라. 만일 그런 자를 문하에 둔다면 먼저 그 살기를 제거하여 그 앞길을 맑게 해주어야 할터이니 그러자면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오느니라. 그런 자 중에도 나를 알아보고 굳이 따르겠다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할 수 없이 허락할 뿐이니라.” 하셨도다.(행록 4장 48절)

묵은 기운이 채워 있는 곳에 큰 운수를 감당키 어려운 까닭이니라. 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꼭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 차있나니라. (교법 3장 4절)

국가간의 척도 존재한다.

상제께서 어느날 가라사대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一時天下統一之氣와 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仁이니라. 만일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잘 지킬지어다”고 이르시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 샅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하셨도다.(공사 2장 4절)

그런데 두나라 사이의 척은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첫째로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 一恨이요.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해되었음이 二恨이요. 세째는 모 심는 법을 가르쳤음이 三恨이라.』(예시 74절)는 내용처럼 일본의 세가지 한에서 온 것이다.

일본과 조선과의 삼한으로 인한 척은 일본의 조선침략으로 생긴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교법 1장 56절)

이에따라 상제께서는 종도 차경석, 김형렬, 박공우에게 타인이 설사 피해를 입힌 원수더라도 원심과 미움 그리고 원망을 버리고 선과 자기 성찰을 가르쳤다.

차경석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복수하려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됴⁴²⁾ 교훈하셨다.

42)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교법 1장 34절)

또 하루는 경석에게 가라사대 “갑오년 겨울에 너의 집에서 삼인이 동맹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시니 그렇다고 대답하니라. 상제께서 “그 일 어느 모해자가 밀고 하므로써 너의 부친이 해를 입었느냐”고 하시니 경석이 낙루하며 “그렇소이다”고 대답하니라. 또 가라사대 “너의 형제가 음해자에게 복수코자 함은 사람의 정으로는 당연한 일이나 너의 부친은 이것을 크게 근심하여 나에게 고하니 너희들은 마음으을 돌리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 하시니라. 경석이 세 아우와 함께 옆방에 모여 서로 원심을 풀기로정하고 상제께 고하니 상제께서 “그러면 뜰말에 짚을 펴고 청수 한 동이를 떠다 놓은 후 그 청수를 향하여 너의 부친을 대한 듯이 마음을 돌렸음을 고백하라” 하시니 경석의 네 형제가 명을 좇아 행하는데 갑자기 설움이 북바쳐 방성대곡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너의 부친은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을 괴로와하니 그만 울음을 그치라” 이르시니라. 그후에 “千古春秋 阿房宮 萬方日月 銅雀臺”란 글을 써서 벽에 붙이시며 경석으로 하여금 항상 마음에 두게 하셨도다.(교법 3장 15절)

박공우가 당한 고통이 전에 남에게 했던 잘못의 결과임을 알고 가해자를 은인으로 생각해야됨을⁴³⁾ 구천상제께서는 말씀하셨다.

상제께서 川原장에서 예수교 사람과 다투다가 큰 돌에 맞아 가슴뼈가 상하여 수십일 동안 치료를 받으며 크게 고통하는 공우를 보시고 가라사대 “너도 전에 남의 가슴을 쳐서 사경에 이르게 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생각하여 뉘우치라. 또 네가 완쾌된 후에 가해자를 찾아가 죽이려고 생각하나 네가 전에 상해한 자가 이제 너에게 상해를 입힌 측에 붙어 갚는 것이니 오히려 그만하기 다행이라. 내 마음을 스스로 잘 풀어 가해자를 은인과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곧 나오리라.” 공우가 크게 감복하여 가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후일에 만나면 반드시 잘 대접할 것을 생각하니라. 수일 후에 천원 예수교회에 열두 고을 목사가 모여서 대 전도회를 연다는 말이 들려 상제께서 가라사대 “네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하여 열 두 고을 목사가 움직였노라” 하시니라. 그후에 상처가 완전히 나았도다.(교법 3장 12절)

김형렬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자신을 먼저 돌아봐 허물을 고쳐야됨을 구천상제께서는 가르치셨다.

43)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교법 1장 56절)

김형렬이 출타하였다가 집에 예수교 신자 金重九가 술이 만취되어 김형렬을 붙들고 혹독하게 능욕하는지라. 형렬이 심한 곤욕을 겪고 돌아와서 상제께 사실을 아뢰니 상제께서 형렬에게 “청수으로 인해서 사경에 해매였다고 하느니라. 이 소식을 형렬로부터 들으시고 상제께서 다시 그에게 충고하시기를 “금후에는 그런 일이 있거던 상대방을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네 몸을 살피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만일 허물이 네게 있을 때에는 그 허물이 다 풀릴 것이오 허물이 네게 없을 때에는 그 독기가 본처로 돌아가리라” 하셨도다.(교법 2장 28절)

다음으로 해원시대에는 德을 실천하고 경위에 맞게 처신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예로부터 “吉星所照”라 하여 길성을 구하러 다니나 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때는 해원시대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 여기서 길성이 빛이 나니 이것이 곧 피난하는 길이니라. (교법 2장 20절)

개인적으로 해원시대에는 잠재해 왔던 마겁들이 나타나 일을 야기시키는 시대이므로 마를 풀어없애는 解魔의 원리로 생활해야된다.

나는 해마를 위주하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복마의 발동이 있으리니 복마의 발동을 잘 견디어야 해원하리라고 타이르셨도다.(교법 2장 15절)

無冤無憾의 세계는 天地公事에 따라 도수조정속에 相生의 道에 의한 後天仙境으로 나타난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예시 80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水,

火, 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예시 81절)

원과 한을 낳았던 상극으로 인한 시기 질투 전쟁이 없어지고 萬國和平의 天下一家가 되어 和權으로 정치하는 국가상을 볼 수 있다.

우주와 세계, 인간과 신의 모든 영역이 祥瑞로움으로 가득찬 無冤無憾의 地上仙境이 해원공사로 열린 道通眞境이다.

IV. 結 語

本考는 典經에 나타나는 冤의 발생양상과 원을 풀어 없애는 해원공사 방법을 중심으로 해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위해 2장에서 선천 상극의 현실속에서 일어난 원과 한의 발생양상을 전경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선천은 상극의 이치로인해 원이 쌓이고 재화와 참화가 발생했던 묵은 하늘이 지배했던 세계였다. 상극속에서 만들어진 원은 한,원한,척등으로 표현되기도하며 그 발생계층과 양상도 다양하다.

3장에서는 해원공사의 방법을 앞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원과 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이와함께 後天의 無冤無憾을 위한 해원시대의 생활 태도를 함께 서술하였다.

대순사상에서 해원은 천지인 삼계에 平和를 구현하기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相克이라는 선천의 구조적 원리하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원을 없애는 것은 선천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핵심이 된다.

해원공사의 기본적 틀은 先天 相克으로인해 어긋난 度數를 調整하고 神明을 조화하는 원리이다. 해원은 천지인 三界에 걸쳐 얽혀진 원을 神道の 원리를 근간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천계 先靈神과 中天神으로부터 人間으로 태어나 살면서 소원과 소망을 이루지못하고 죽어 원과 한을 갖고 있는 신들 그리고 禽獸에까지 해원공사가 이루어진다.

삼계내의 해원 대상에 대한 공사를 명료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전경 구절을 고찰해 보았을 때 해원공사는 삼계에 대한 도수조정과 신명조화하에 각각의

원의 양상과 내용에 맞춰 포원자의 요구와 의도에 따라 그 소망과 소원을 들어주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해원의 원리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원한 인간의 사후에 신계에서 갖게되는 원의 내용이 上帝의 말씀하에 밝혀짐으로써 해원공사의 방법이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典經』, 大巡眞理會 教務部, 1974
- 『大巡指針』, 大巡眞理會 教務部, 1894
- 『大巡眞理會要覽』, 大巡眞理會 教務部, 1969
- 『大巡論集』, 大巡眞理會 教務部, 1992
- 『大巡思想의 現代의 理解』, 大巡宗教文化研究所, 1988
- 『甌山의 生涯와 思想』, 大巡宗教文化研究所, 1979
- 『大巡思想論叢』 제1집, 大巡思想學術院, 1996
- 『大巡思想論叢』 제2집, 大巡思想學術院, 1997
- 『大巡思想論叢』 제3집, 大巡思想學術院, 1997
- 司馬遷, 『史記』, 宏業書局, 中華民國 72年
- 『大漢和辭典』 諸橋轍次著, 大修館書店, 1984
- 『漢韓大辭典』, 民衆書林, 1990
- 鄭鎮洪, 『종교학 서설』, 전망사, 1980
- 金炯孝, 『東西哲學에 대한 主體的 記錄』, 고려원문화총서, 1985
- 서광선 엮음, 『恨의 이야기』, 청노루, 1988
- 최창조 외, 『풍수 그 삶의 자리 생명의 자리』, 푸른나무, 1993

도표 1 운합명과 운합요소

次例	運合名	運合要素	次例	運合名	運合要素
1	天地之道	元亨利貞	19	品物之精	走飛草木
2	人神之道	仁義禮智	20	清濁之精	正直剛柔
3	八位之精	乾坎艮巽坤離兌震	21	京邑之精	萬國國都
4	四位之精	東西南北	22	人民之精	萬國州郡
5	轉換之度	周天三百六十五度 四分度之一	23	一合之精	儒佛仙
6	天十之精	甲乙丙丁戊己庚辛 壬癸	24	兼用之精	文武之
7	地十二之精	子丑寅卯辰巳午未 申酉戌亥	25	五福之精	壽富貴攸好德多 男子
8	五行之精	金木水火土	26	中和之精	喜怒哀樂
9	五色之精	青紅黃白黑	27	五事之精	貌言視聽思
10	五音之精	宮商角徵羽	28	八政之精	食貨 祀司 空司 徒司 寇賓師
11	律呂之精	黃鍾 大呂 大簇 來鍾 姑洗 仲呂 蕤賓 林鍾 夷則 南宮 無射 應鍾	29	觀測之精	世界人民
12	五味之精	酸苦甘辛	30	六爵封秩之精	王公侯伯子男
13	四時之精	春夏秋冬	31	一合之精	萬國各都
14	造化之精	日月星辰風雲關籙	32	使用之精	天下壯士
15	調和之精	雨陽煥寒	33	赤子之精	四海蒼生
16	鍾陸之精	六洲山岳	34	一統之精	四海疆土
17	鍾水之精	江湖河海	35	做作之精	海印造化如意
18	率土之精	原濕井野	36	修道一合之精	仙佛儒諸修道者